

#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의 의미와 가치 연구

Meaning and Value Analysis of Records of  
Laos Renewable Energy Support Activities Collection

주현미(Ju, Hyun Mi)\* · 임진희(Yim, Jin Hee)\*\*

1. 서론
2.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 현황
  - 1) 수집 계획과 의도
  - 2) 수집 과정과 수집 기록의 종류
  - 3) 보완 수집된 기록
3.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의 함의
  - 1) 라오스 국제협력활동가 A씨의 삶
  - 2) 국제개발협력 활동 기록으로서의 의미
  - 3) 라오스의 재발견
4. 의미와 가치를 반영한 기록의 조직화 방안
5. 결론

\*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아키비스트(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아키비스트(교신저자).

■ 투고일 : 2017년 12월 20일 ■ 최초심사일 : 2017년 1월 3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월 17일

## 〈초록〉

최근 기록학계에는 특정 기록물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기록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도출하는 기록컬렉션 분석 연구가 드물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행위에 주목하고 그 행위로 인해 생겨난 기록물을 통해 다시 사회를 읽어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수집한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 분석을 통해 이 기록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도출하고 이 의미와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컬렉션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기록은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기증자의 개인기록과 사업진행 과정과 결과 기록이다. 이를 통해 라오스에서 국제개발협력활동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해나가는 개인의 삶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성과 원칙, 실제 수행의 결과로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오랫동안 라오스에서 지내며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온 기증자의 관찰기록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라오스 시골의 문화와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주제어 :** 개인기록,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NGO, ODA

## 〈Abstract〉

In recent years, there were some who have conducted research on deriving the social and historical meanings of records through the analysis of specific records collections. This trend is an attempt to pay attention to human actions in the society and to read the society again through the records created by such actions. In this study, I derive various meanings and values of these record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aos Renewable Energy Support Activities” collection. Moreover, I study how the collection was reconstructed by the Human and Memory Archives. The “Laos Renewable Energy Support Activities” is the

personal record of the donor who led the project, and contains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project. Through this collection, I was able to look at the life of the donor as a foreign aid activist in Laos and realized his values. Furthermore, through the business process record, I was able to discover the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response overseas aid projects. In addition, I was able to look at the culture and environment of Laos through the eyes of the donor who has been residing there for a long time.

**Keywords :** personal records, Laos, renewable energy, NGO, ODA

## 1. 서론

최근 기록학계에는 기록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추구로부터 기록의 성격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려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정한 기록물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기록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드물게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성미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가치를 도출하였다(정성미 2016). 이정연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대해 “사건”에 대한 가치를 넘어서 인권기록으로써의 가치를 살펴보았다(이정연 2015). 김영과 설문원의 밀양송전탑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 주민의 구술기록 분석 역시 특정 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운동참여의 맥락을 도출한 연구이다(김영, 설문원 2015). 필자 역시 최근 녹색당의 선거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주현미 2016). 기록학계의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개인기록에 대한 연구이다. 최인혁과 이영학은 생애사 연구 자료로서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살펴보고 생애사 연구방법을 반영한 개인 기록화 방안을 제안하였다(최인혁, 이영학 2015). 개인 아가

이브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최유리, 임진희, 2015).

이러한 흐름은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행위에 주목하고 그 행위로 인해 생겨난 기록물을 통해 다시 사회를 읽어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인간이 생산한 기록물에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의미와 다채로운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최인혁, 이영학 2015, 50). 특정 기록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대해 탐구하는 인간학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이영남의 연구에서도 인간학적 관점에서 기록화의 과제으로써 인간에 대한 탐구를 확인할 수 있다(이영남 2016).

필자가 소속된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운영하는 일상아카이브인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역시 인간의 행위와 사고, 사회 속에서의 상호작용 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수집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을 보존하고 공유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수집한 국제개발협력활동가 A씨의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A씨의 기록을 통해 현시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활동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주요 활동 영역이었던 라오스라는 -우리에게는 예능프로에서 청년들의 여행지로 등장했던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또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시민사회활동 즉 NGO활동<sup>1)</sup>을 동일한 목표를 가진 개인들의 공동체 활동의 하나로써 가치지향적인 개인 일상 활동으로 보고 다양한 NGO 활동 기록을 남기기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

1) 엄밀히 말해 시민사회활동을 하는 주체를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인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나 일반적으로 국제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를 뜻하는 NGO라는 용어가 한국에서는 '시민단체'와 교환되는 수준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NGO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NGO 활동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물을 수집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기록물을 입수하게 되었고 현재 재조직화 과정 중에 있다. 해당 기록은 NGO활동 기록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활동의 주체인 ‘국제개발협력사업’, ‘재생가능에너지’, ‘교육’ 분야에서도 시사점을 가지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A씨 개인의 가치와 지향도 담겨있다. 본 연구는 해당 컬렉션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고 이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을 조직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기록 보존을 통해 미래세대에 기억되고 공유되기를 바라는 의미와 가치의 전달을 지향하는 아카이브가 개별 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심층 인터뷰, 콘텐츠 분석, 내러티브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A가 수행한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진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심층 인터뷰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결심과 활동의 전개양상에 대한 것과 활동 중의 애로 사항 그리고 자신이 남긴 기록물에 대한 설명을 중심 주제로 하여 진행하였다. 콘텐츠 분석은 A씨로부터 기증받은 ‘라오스 재생에너지지원 활동’ 기록컬렉션을 살펴보면서 미래세대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재조직화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재조직화 과정에서 기록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헌연구와 심층연구가 병행되었다. 활동가로써 A씨의 삶을 보여주는 기록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내러티브 글쓰기 방식을 선택했다. 심층 인터뷰 내용과 A씨의 개인기록을 분석해 사업과 활동의 의미와 기록을 남기게 된 배경에 대해 도출하고자 했다.

## 2.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 현황

### 1) 수집 기획과 의도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일상을 영위하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활동 기록을 수집한다. 그중에서도 시민단체 활동의 참여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 시민사회는 개별 시민과 시민들 간의 연결망, 언론과 같은 기관, 동호회나 친목모임 그리고 고유한 규범과 문화 등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실현하고, 상호교류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주된 통로가 된다(조철민 2015, 180). 때문에 시민단체의 활동기록은 개인의 시민으로써의 적극적인 참여의 형태를 보여주며, 개인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 영역을 범주에 따라 나눈다면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통치와 정책에 대한 일련의 반응으로써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해 비정부조직을 통해 해결하거나 때로는 정부의 파트너가 되어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다양한 참여의 방식의 기저에는 정부의 통치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은 정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 기록 전체를 그대로 아카이브에 이관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혹은 한 두 단체의 전체 기록이 입수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한국사회와 시민단체 영역에 시사점을 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주제, 형태, 규모 등이 너무 다양하고 기록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NGO 활동 기록의 대량 수집보다는 〈아카이브 시민학교〉 등의 강좌를 통해 각 단체가 업무수행 중 기록을 잘 생산하고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스스로 수

행하도록 하면서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시민단체영역의 기록수집의 방향을 수립한 후 NGO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중 하나인 프로젝트 단위의 기록을 수집하여 시민단체들에 아카이빙 방법과 아카이브 사례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런 차원으로 수집한 컬렉션의 사례 중 하나가 본 연구의 대상인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이다.

해당 사업의 주체인 (사)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15년도에도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함께 오픈소스 기록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한 NGO 시민참여형 프로젝트<sup>2)</sup>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함께 진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이다. 기증자 A씨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소속 연구원이면서 라오스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인 ‘라오스에너지지원센터’의 센터장이다. A씨는 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의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기록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프로젝트 아카이빙 협력 경험이 있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록물 일체를 기증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인 필자가 오랜 기간 동안 기증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회원이자 비상임연구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기증으로까지 이어지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필자 역시 해외봉사단원으로 베트남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이 라오스 사업에 있어서도 2012년의 현장 사업, 2014년의 교육교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였고, 현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산하 라오스에너지지원센터의 기획위원이기도 하다. 민간영역의 아카이브는 수집 아이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

---

2) 해당 사업은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공익활동 지원 변화의 시나리오 3년 사업의 두 번째 단계로 일반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기록으로 남기고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함께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해당 결과는 [http://hmarchives.org/omeka/exhibits/show/people\\_energy](http://hmarchives.org/omeka/exhibits/show/people_energy)에서 확인할 수 있다(검색 2016.12.13.).

처럼 아키비스트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증자와 아키비스트의 신뢰관계에 따른 수집이므로 기증자에 대한 이해와 기록 및 기록의 출처가 되는 사업과 단체에 대한 이해가 가능했고 또 기록의 맥락 정보를 얻기가 더 수월해서 기술을 더 풍부하게 할 수도 있었다. 이번 기록 수집 과정과 기증자 인터뷰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록 수집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기록 수집은 아카이브의 수집 방향 위에 인적 네트워크와 기증자의 아카이브에 대한 신뢰, 이 기록을 활동의 증거로써 이 시대 사람들, 나아가 미래 세대의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기증자의 결심이 합쳐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기록물은 애초에 NGO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아카이빙의 사례로 구축될 예정이었으나 A씨가 기증한 기록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활동가로, 때로는 여행객으로 때로는 마을 관찰자로서 라오스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해당 컬렉션을 NGO 활동 기록으로써만이 아니라 개인기록으로써의 가치를 포함해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를 느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시민단체 활동의 참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참여형태로 구분하자면 단순 지지자로서의 참여, 회원으로서의 참여, 활동가로서의 참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활동가로서의 참여는 개인 가치의 실현과 직업인으로서의 삶이 겹쳐지는 것으로 시대의 문제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삶에의 적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으로써 활동가 개인기록의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2) 수집 과정과 수집 기록의 종류

기증 과정은 기증자 접촉 → 기증자 인터뷰 → 기증 대상 기록의 실물 확인 → 기증자 차원의 기록 정리 → 기록물 인수의 과정을 거쳤으며 실물



기록과 외장하드에 정리된 전자기록을 인수해 기록물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있다. 올해 7월경 기증자에게 기증 의사를 타진한 후 기증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8월에는 기증자 A씨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동시에 해당 기록에 대한 맥락 기록을 파악하고 문헌조사를 실시했다. 기증자가 국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라오스로 출국하기 전에 기증 기록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고 기증자가 기증 기록물을 정리하는 동시에 아키비스트인 필자는 기증될 기록의 실물을 확인하고 기증자와 라오스에너지지원센터의 또 다른 활동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제 기록물의 인수는 10월 말 경에 이루어졌다.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의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 당시 기록물은 실물기록물이 19권, 전자기록물 71.4GB(파일 15,590건)이었다. 다음은 인수 당시의 기록 정리 상태이다.

〈표 1〉 라오스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 기록 인수 내용(실물기록)

| 연번 | 철명                      | 기록  |
|----|-------------------------|---|
| 1  | Vientiane Times         | 영자신문 기사 4건  |
| 2  | Lao Field Research Data |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문서 및 첨부문서   |
| 3  | 2013 KOICA 교재 & 설문      | 영문 교재 1부, 수료증(양식) 2부, 라오스어 교재 2종(양면 복본 1부 포함), 설문조사 응답지 34장, 설문조사 양식 2부 |
| 4  | Vientiane Times 등       | 영자신문 기사 2건(신문 전체)   |
| 5  | 2014 재생가능에너지교육 설문분석     | 설문조사 응답지 11장, 재생가능에너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양식 및 결과 분석                     |
| 6  | 싸바이다-환경, 에너지 삽화 원본      | 어린이용 교재 삽입용 삽화 원본 43장, CD 2장 (삽화 스캔본 / 성인용 교재 참고자료 모음)                  |
| 7  | 2013 KOICA 중간보고 정산      | 수입결의서 8건, 회계 관련 발신공문(수신처: 코이카) 5건, 수신문서 3건(발신: 코이카), 지출결의서 21건,         |

|    |                      |  |
|----|----------------------|--|
| 8  | 2013 KOICA 결산보고 정산   | 단년도 사업종료보고서 1부, 통장 사본 - 지원금 통장, 현지 통장, 자부담 통장 각 1부, 공문 3부, 정산 명세 3부, 지출결의서 및 증빙영수증 44건, 수신 공문 1건 및 첨부자료  |
| 9  | 코이카 1                | 지출결의서 35건 / 예정연 입출금 내역 및 기부금 영수증   |
| 10 | 코이카 2                | 회계보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단년도 사업 계획서 요약본 1부, 지출결의서 45건   |
| 11 | (라오센터) 통장            |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2건   |
| 12 | 현지직원 서류              | 근로계약서(영문) 4건, 졸업증명서 4부, 성적증명서 4부, 영수증 4부   |
| 13 | 미정산 증빙서류             | 진행비 영수증 - 미처리된 것으로 반환 예정   |
| 14 | 2016 정산영수증 상         | 인수 보류(현재 업무활용 중)   |
| 15 | 미정산 영수증 하            | 인수 보류(현재 업무활용 중)   |
| 16 | 수신공문 2015            | 라오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5년 예산 산출내역 변경 승인 1부  |
| 17 | 발신공문 2015            | 양해각서 요청 공문 1부(수신처: 라오스 교육청 대외협력부), 청년인턴 하반기 정산의 건 1부(수신: 코이카), INGO 등록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1부(수신: 주라오스한국대사관), 2014년 지원금 잔액 반납의 건 1부(수신: 코이카 민관협력실), 5-18 계승사업 공동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공문 1부(수신: 5-18기념재단), 2014년 단년도 사업 종료보고 1부(수신: 코이카), 민간단체 지원 사업 계속지원 사업 2015년 예산 세부산출내역 변경의 건 1부(수신: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 ODA 청년인턴 채용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요청 1부(수신: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총 8건 |
| 18 | A씨 자료                | A씨 개인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수락서 각 1부  |
| 19 | Lao Operation Permit | A씨 단기 전문가 승인 요청서 1부, INGO 등록증 1부   |
| 20 | 회원가입서                | 회원가입서 원본 35건(개인정보 있음)  |
| 21 | 2014 5-18재단 지원사업 보고서 | 결과보고 1부, 사업비 정산서 1부, 증빙자료 28장  |

〈표 1〉은 가정리 상태의 목록으로 인수 당시 즉, 생산자이자 기증자인 A씨가 기록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분류한 것으로 철명 역시 A씨가

부여한 것이다. 철단위는 서류봉투 한 묶음 또는 하나의 파일철 단위를 부여한 것이다. 기증 당시 실물기록은 아래와 같은 상태로 정리되어있었고, 서류봉투 앞면에 A씨가 철명을 수기하였다. 인수 과정은 필자가 직접 사진 기록으로 남겨두었고, 실물 기록 확인 당시 해당 내용을 영상기록으로 생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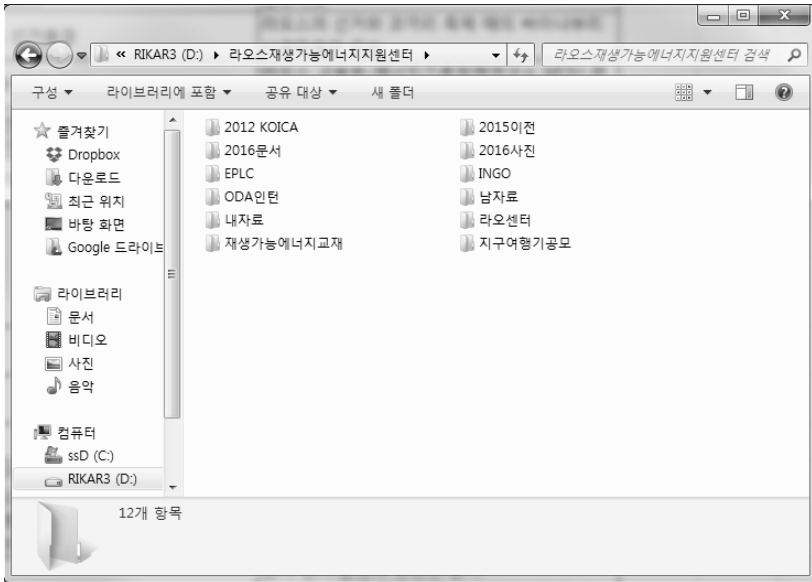
〈그림 1〉 인수 당시 실물 기록의 정리 상태



실물기록은 주로 문서류이며 교재용 삽화의 원화와 같은 그림류가 포함되어 있고 삽화 스캔본 등이 담긴 CD 두 장과 회원가입서(카드류) 원본도 포함되어 있다. 기증 대상 중 2016년 현재 업무활용 중인 두 개의 철은 차후 인수하기로 하고 21개의 철 중 19개의 철만 입수하였다. 인수 후 해당 원질서 상태로 하위 기록의 내용을 파악하여 목록화하였다.

전자기록은 A씨의 업무용 PC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외장하드에 그대로 옮겨서 인수하였다. 폴더의 계층 구조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기증자의 정리의도를 존중하여 실물기록과 마찬가지로 기증자가 정리한 인수 당시의 상태를 목록화하였다.

〈그림 2〉 인수 당시 실물 기록의 정리 상태(전자기록)



〈그림 2〉는 기증 당시 기증자가 정리한 그대로의 상태를 캡처한 것으로 1레벨이 12개의 폴더로 구성되어있다. 대다수의 NGO가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sup>3)</sup> 많은 기록이 담당 활동가

3) 지난해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서울시NPO센터의 지원을 받아 공익활동가를 위한 기록관리교육-‘NGO기록관리레시피’ 강의를 진행할 당시 20여명에 가까운 활동가들 가운데 기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단체가 한 곳에 불과했고, 내부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한두 단체에 불과했다.

의 책상이나 PC에 쌓이게 되고 업무를 반영한 업무분류표나 전자기록 폴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편이다. 기증자의 경우 자신이 알아보기 편한 방식으로 기록을 조직하였으나 이를 활용할 기관 내 다른 활동가들이나 회원들에게는 비효율적인 조직방법이라 생각된다. 재조직화 방법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서술할 예정이다.

〈표 2〉 라오스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 기록 인수 내용(전자기록)

| 1레벨           | 2레벨             | 주요 기록물(건)   |
|---------------|-----------------|---|
| 2012<br>KOICA | 조사계획서           | 코이카 민간단체 발굴사업 일환으로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사업계획서 및 예산  |
|               | 현지조사            | 현지조사 일정표, 현지 설문조사 및 체크리스트   |
|               | 교육자료            | KOICA PCM(Project Cycle Management, 코이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교육과 관련, 강의안, 자료집 등   |
|               | 국제팀             | 라오스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배경이 되는 에너지후정책 연구소의 동남아시아 원조 사업 방향성 설정 과정의 기록 - 회의록, 세미나 등  |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완성본 | KOICA 민간단체 발굴사업 제안서 제출 서류<br>-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기관서류(정관, 조직도, 감사보고서 등)<br>- 민간단체사업발굴지원 참가계획서   |
|               | 개별 문서           | 해당 사업 공모 안내 공문, 내부 회의자료 등 사업 지원과 관련한 생산 또는 접수 문서  |
| 2015<br>이전    | 문서2013          | 라오스 에너지광산국, LIRE 등 현지 파트너십 관련 문서<br>2013년 단년도사업계획서/중간보고서/사업진행관련문서/외부 매체에 기고한사업과 관련한 칼럼원고  |
|               | 문서2014          | 다년도사업(3개년) 1차년도<br>- 사업계획서<br>- 1차년도사업진행관련문서: 교육프로그램진행 및 교육교재 개발, 학교2 곳 태양광설비지원 등   |
|               | 문서2015          | 다년도사업(3개년)2차년도<br>- 사업계획서<br>- 2차년도사업진행관련문서: 교육교재발간및배포, 지역주민 교육, 전문가양성교육, 에너지지립마을대상사전조사 등   |
|               | 사진2012          | 현지조사 대상 마을 사진<br>- 싸이나부리 기본환경 조사 사진<br>- 싸이나부리내내반낙꾸왕, 싸나싸이, 푸뚜이, 후와이짚산골 학교 사진<br>현지조사 관련 이미지<br>- 학교정보시스템 캡처<br><착한에너지기행> 원고 및 사진 |

|         |                        |   |
|---------|------------------------|---|
|         | 사진2013                 | <p>년 사업 진행 관련 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트너십 협의(LIER, 라오스국립대, 교육청 등)</li> <li>- 계측기 설치 및 시설치 지역발전기 점검사진</li> <li>- 라오스 새해 빼마이 축제 모습</li> <li>- 직업학교학생대상에너지이론및실습교육모습</li> <li>- 라오스시골모습</li> </ul> |
|         | 사진2014                 | <p>교육교재 개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회의, 국내외파트너십발굴과정</li> <li>- 시범교육<br/>재생가능에너지교육(싸이나부리직업학교)<br/>산골중등학교태양광설비지원및교육<br/>라오스사무실개소준비<br/>라오스싸이나부리지역이모저모</li> </ul>                                 |
|         | 사진2015                 | <p>재생가능에너지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패널제작실습, 교육, 수료식, 에너지자립마을조성</li> <li>- 남카마을현지조사</li> <li>- 재생가능에너지지원(17가구)</li> <li>- 마을주민협의<br/>태양광발전기실험제작실구축(싸이나부리)</li> </ul>                            |
| 2016 문서 | KOICA                  | <p>2015 하반기 사업현황보고서<br/>2016상반기사업현황보고서<br/>출장(라오스현장업무)보고서<br/>사업비집행관련문서</p>   |
|         | LAOS                   | <p>재생가능에너지 교육 매뉴얼 및 2016 교육일정<br/>라오스교육부와의 MOU체결과 관련한 공문, 보도자료, 보도<br/>기사,칼럼 등</p>  |
|         | Proposals              | 같이가치, 함께일하는재단, 젊은부처 등 KOICA 이외의 기관<br>에 제출한 사업제안서   |
|         | Quotations             | 참고자료  |
| 2016 사진 | 라오스 선거풍경               | 라오스의 선거와 코끼리 축제 때의 싸이나부리 시골마을의<br>모습  |
|         | MOU와 교육 준비             | 라오스 교육부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MOU 관련 사진  |
|         | 재생가능에너지 집합교육/<br>태양광교육 | 재생가능에너지 집합교육 진행사진   |
|         | 꿈반하오 마을조사              | 2차 에너지자립마을 후보지 사전조사(뻑하오郡)   |
|         | 푸딘태양광설치                | 방비엔(왕위양) 푸딘당 청소년 센터에 50W 태양광설비 지원<br>내용   |
| EPLC    | -                      | UNEP EPLC의 리더쉽 교육 중 현지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br>램의 멘토로 참여한 이영란 소장의 현장방문 기록 - 교육생<br>활동 단체는 사랑나눔의사회 라오스지부로 활동지역은 수도<br>비엔티엔(워양짚)   |
| INGO    | -                      | 라오스 외교부에 공식 활동기관(INGO) 등록 관련 문서   |

|               |                                       |   |
|---------------|---------------------------------------|---|
| ODA인턴         | -                                     | 한국 인력 확보를 위한 ODA 인턴제도 활용 관련 문서                                |
| 참고자료          | -                                     | 교육 및 현장조사를 위한 외부 참고 자료  |
| 개인자료          | 교육청자료<br>기자리포트<br>연구소행정서류<br>코이카자료    | 활동과 관련하여 기증자가 수집한 자료와 소속기관인 에너지<br>기후정책연구소의 (라오스 사업 이외의) 행정서류 |
| 라오센터          | -                                     | 현지 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서<br>- 현지행정자료, 회의자료, 사업비정산자료등                  |
| 재생가능에<br>너지교재 | poster<br>싸버비디_에너지<br>적정기술매뉴얼<br>참고자료 | 학생, 교사용 교재 개발과 관련한 참고자료, 과정본 등                                |
| 지구여행기<br>공모   | -                                     | 라오스 재생에너지지원센터 착한여행기 공모사업 관련 자료<br>- 기획안<br>- 공모웹자보<br>- 관련사진등 |

〈표 2〉는 전자기록의 철 단위 목록이다. 1레벨 중 ‘2015 이전’이라는 이름의 폴더의 경우 아이템까지 총 4개의 레벨로 이루어져 있고, ‘INGO’, ‘ODA인턴’ 등 2레벨 내용이 비어 있는 폴더의 경우 해당 폴더 하위에 바로 아이템이 있는 식으로 2레벨로 이루어져있다. 그 외의 폴더는 3레벨로 되어 있다. 연도별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렵거나 직접적으로는 에너지지원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기록물의 경우 이처럼 따로 폴더를 생성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해당 파일을 일일이 열람하였고 맥락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검색과 문헌조사를 병행하였다.

전자기록에는 문서류, 사진그림류, 영상음성류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메일로 회원가입서<sup>4)</sup>를 접수한 경우 해당 페이지 전체를 내려 받아 압축한 파일도 존재한다. 사진기록에는 수혜 지역 각 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캡처한 기록도 포함된다.

4)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산하 라오스에너지지원센터가 생긴 2015년부터 별도의 후원회 원구조를 가지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온라인 회원모집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이메일로 회원가입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 3) 보완 수집된 기록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의 보완을 위해 기증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라오스 산간학교에 햇빛발전을!’(<http://cafe.daum.net/solarlao>) 과 기증자 A씨의 저서, 코이카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고문(홈페이지) 등의 기록을 보완 수집하였고 필자가 2012년 현장조사팀의 팀원으로 사업을 수행할 당시 생산한 기록을 추가로 기증하였다. 기증자와의 인터뷰 기록과 기증 당시 기록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영상 기록도 관리와 관련해 보완 생산·수집한 기록이다.

기증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라오스에서 쓴 일기를 엮은 첫 번째 책은 기증자가 라오스 지원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사업 구상에 대한 보완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초반에 집필한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은 기증자가 소속된 연구소의 동료들과 공동집필한 것으로 지구촌 곳곳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여행기 형식의 책이다. 기증자 뿐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한 단체 활동가들의 사업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역시 수집 기록과 함께 맥락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이다.

아직 기증되지는 않았으나 기록물 기증 이후 산골마을 4곳을 추가로 지원한 과정과 기증자의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아리랑TV의 다큐멘터리<sup>5)</sup> 촬영 원본 및 방영본 영상파일 등 추가로 기증 받았다.

또한 코이카 사업 외에 환경교육센터,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과학창의재단 등 사업지를 방문한 개인 및 단체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을 추가로 수집하면 다른 시각으로 라오스와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사업을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이 현재 라오스에너지지원센터의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기증자의 도움을 받아 추가 수집할 예정이다.

---

5) 아리랑 채널, 아리랑 프라임 <메콩의 햇빛>, 2016년 12월 28일 방영



### 3.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의 함의

#### 1) 라오스 국제개발협력활동가 A씨의 삶

코이카의 해외봉사단원으로 파견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A씨<sup>6)</sup>처럼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모색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코이카는 개발원조 분야에 있어 해외봉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sup>7)</sup>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인력양성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김철희 2011). 코이카는 ODA 교육원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민간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NGO를 대상으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코이카의 위탁을 받아 월드프렌드 NGO봉사단 사업을 운영하며 민간분야 원조활동가를 파견하고 시민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돕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이 있지만 낮은 곳에서의 활동은 쉽지 않다. 봉사단원이 다시 다른 나라로 파견을 신청해서 가거나 국내에서 지원 업무를 하는 일은 종종 있으나 같은 국가에서 파견 기간 동안의 노하우를 발전시켜 자신의 활동을 확장시키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sup>8)</sup>.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선택이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을 국제개발협력활동가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라

6) 기증자가 특별히 임명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 3장에서 기증자를 A씨로 지칭함은 기증자의 특별한 이야기로써가 아니라 라오스에 애정을 가지고 라오스를 돕고 있는 활동가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다. A씨는 라오스에서 10년간 활동해오고 있는 국제개발협력활동가이다.

7) [https://kov.koica.go.kr/hom/sub/info/info02/Hom\\_me\\_2030.jsp](https://kov.koica.go.kr/hom/sub/info/info02/Hom_me_2030.jsp) (검색: 2016.12.19.)

8) 봉사단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은 귀국 봉사단원 단체인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http://www.kova.org/>)의 비전과 활동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직에서도 A씨와 같이 오랫동안 파견지에서 활동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며, 그 힘들다는 민간영역에서의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A씨와 함께 라오스에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라오스를 그리워하고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A씨가 라오스에서 남긴 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는 A씨의 10년 동안의 삶을 네러티브 방식으로 구성해보았다. 라오스에서의 삶이 활동가로써의 그의 삶을 모두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문명의 혜택이라 여겼던 ‘전기’의 이면에 있는 자본의 논리에 대한 인식, 국제개발협력활동에 대한 실제적 물음, 낯선 이로써 마을에 들어가 살 때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여줬던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에 가슴 벅찼던 순간들이 그의 삶을 여전히 라오스로 이끌고 있음을 그가 남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처음부터 라오스에 갈 생각은 아니었다. 90년대 초반 학번, 당시 행정학과에는 여학우가 많지 않았다. 선배들을 따라서 학생운동을 했고 학부를 졸업하면서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했다. 열심히 활동했다. 시민단체 활동 중 만난, 역시 활동가인 남편과 결혼 후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도 해봤지만 어느 순간 답답해졌다. 2006년 말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에 지원했다. 그때 가고 싶었던 나라는 아프리카 콩고. 파견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국가 상황으로 인해 파견단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선택의 여지없이 도착한 곳이 라오스, 그것도 수도에서 꽤 멀리 떨어진 싸이나부리<sup>9)</sup>라고 하는 시골이었다. A씨와 라오스와의 인연은 2007년 1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왜 라오스였을까 생각해보면 우연이었다고 하지만, 그 인연이 파견 종료 후인 지금까지도 이어진 것 보면 우연만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

9) Xayaboury.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라오스어는 기증자가 사용하는 독음을 차용해서 쓴 것이다.

“내 활동의 기초는 그때, 코이카 파견단원 대상으로 한 교육기간에 형성된 것 같아요. 그때 온 강사가 문화인류학 전공한 사람이었거든.” 유독 사람, 동물, 자연을 찍은 사진기록이 많아 그 이유를 묻는 내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A씨는 라오스의 사람들을 관찰해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의 모습, 한가로이 마을 여기저기 누워 있는 동물들, 어찌 보면 황량한 느낌마저 드는 논과 밭, 산을 기록으로 남겼다. “원조는 돕는다는 의미잖아.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필요한 걸 주는거.” A씨는 원조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 믿고, 도움을 주는 국가의 논리가 아닌 철저히 원조를 받는 나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 이 도움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2007년 당시 세계 최빈국인 라오스에서 연소득 수준이 500달러 정도로 최하위인 싸이나부리도(道). 그 중에서도 최하위인 연소득 378달러의 가난한 지역 싸이나부리군(郡)의 민파팍중학교가 A씨의 파견지였다. 순진하고 정이 많은 동료선생님들과 마을 사람들, 놀거리가 많지 않아도 즐거운 아이들과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2년을 활동했다 아니 그냥 같이 살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A씨는 매순간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라오스에서의 삶에 대한 기록을 엮어낸 책의 서문에 기록한 것처럼 라오스는 이제 A씨의 고향이 되었다.

2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라오스가 눈에 밟혔다. 당시만 해도 농어촌의 전기보급률이 50% 정도에 불과했던, 그나마 산골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태반이었던 그 곳이 그림고 안타까웠다. 전기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해가 떨어지면 책을 읽을 수 없고,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땀감을 찾아 산을 오르내려야 하는 것이다. 라오스 시골에 있어보니 전기는 교육의 문제, 여성노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메콩<sup>10)</sup>의 풍부한 수력을

10) 일반적으로 메콩강이라 부르지만 라오스어로 강을 뜻하는 ‘메’에 강의 이름인 ‘콩(정확한 발음은 경. 어머니라는 뜻)’이 붙어 굳이 ‘강’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바탕으로 수력발전을 통해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정작 강에 기대 사는 주민들은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없다.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의 다짐처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A씨는 라오스 산골학교와 마을에 전기를, 그것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전기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삶의 전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인 것 같은데 그의 삶은 라오스에서의 2년의 삶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시민사회의 공익펀드를 뒤지고 지원 사업을 살폈다. 마침내 2012년, 코이카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공모해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가능성을 연구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다시 돌아온 라오스 싸이나부리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또 많은 것이 변해있었다. 싸이나부리를 끼고 흐르는 메콩에 외국자본이 들어와 대규모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면서 읍내 시장에는 외국의 낯선 노동자들이 보였다. 자국의 노동자나 인근 국가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탓에 댐을 지어도 지역의 소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댐건설로 인해 수몰지역이 생겨 마을을 옮겨야 하는 일이 생기면서 지역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메콩은 라오스를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의 원천이다. 세계 최빈국이지만 굶어죽는 사람이 없는 것도, 라오스의 최대 수출품인 전기도 메콩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대규모 댐 건설이라니. 대규모 댐은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고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중앙 집중식 대 전력 중심의 발전은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죽일 뿐만 아니라 전력 낭비와 비효율도 가져온다(A씨의 또 다른 저서, 『나쁜 에너지 기행』 라오스 편 중에서).”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다른 방식, 그 증거가 필요했다.

2012년 현장조사 사업은 이를 증명해내는 활동이었다. 에너지기후정책연

구소 내에 국제팀을 꾸리고 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문헌 중심의 사전조사와 9박 10일의 현장조사에 필자도 연구팀으로 참여한 바 있다(2012 KOICA 기록물군). 라오스국립대의 재생에너지학과, 라오스 내에서 성공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외국의 사회적 기업 썬라톱과 산하 비영리기구인 LIRE, 싸이나부리도의 교육청과 에너지광산국 등. 지역의 실제적인 필요와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났다.

2013년에도 코이카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지원해 단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2012년 사업에서 한걸음 나아가 마을과 학교 몇 곳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해서 마을공동체 스스로가 이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2014년부터는 3년 동안의 다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제 A씨의 라오스 지원활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안정적인 코이카의 지원 없이, 줄어든 펀드를 가지고 라오스 센터의 독립적인 운영을 꾸려야 할 시기이다. A씨는 생각한다. “만나야 할 사람은 그게 언제든 꼭 만나게 된다고 [...]” 라오스에서 첫 기록에 썼던 것처럼, 라오스를 마음에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하고.

## 2) 국제개발협력활동 기록으로서의 의미

5년간의 사업 진행 과정이 담겨 있는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실제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사업대상지역은 라오스(공식국가명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서쪽에 위치한 싸이나부리도의 싸이나부리군이다. 사업은 2012년도의 현장사업, 2013년도의 단년도 지원 사업,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년도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국내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유상(자금협력)원조와 무상(기술협력)원조로 구분되며 무상원조는 외교부(주관기관)와 코이카(집행기관)가 전담하고, 유

상원조는 기획재정부(주관기관)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집행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진행된다(박진희, 안병옥 2014, p.14). 기록이 담고 있는 사업은 무상원조를 집행하는 코이카로부터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환경’분야의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중 환경ODA, 그중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ODA는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 후<sup>11)</sup> 〈기후변화 적응의 개발협력의 통합에 관한 선언〉에 따른 환경 ODA의 확대 필요성 인식에 따라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분야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남반구의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우선되어야 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원조에 대한 공감은 국제사회에 일반적인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ODA 역시 이에 부합한 내용과 방식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기록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2012년 코이카의 환경 1차 목적 ODA는 297건, 44.7백만 달러였다. 환경 영역 세부분야별로 보면, ‘환경지원’ ODA가 57개국, 153건, 29.4백만 달러였고, ‘기후변화 완화’ ODA 33개국, 51건, 1.6백만 달러, ‘기후변화 적응’ ODA 38개국, 72건, 13.1백만 달러, ‘사막화 방지’ ODA 6개국, 21건, 0.6백만 달러였다(박진희, 안병옥 2014, p.94). 환경 ODA는 코이카의 전체 ODA 사업 중 4%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민간단체를 통한 환경 ODA는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의 해당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협력을 통한 ODA는 공공기관이 직접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성, 기술 등을 통해 민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장지순 2012, 30). 이러한 이유로 민간을 통한 ODA

11) DAC는 MDGs, 빈곤, 성평등, 환경, 분쟁과 평화 및 취약국가, 무역, 원조효과성, 원조의 질, 거버넌스 등 9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발간하고, 이 자료를 통해 DAC 회원국이 준수할 원조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이러한 국제원조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김대환 2010, 10).

가 확대되어야 하지만, 각각의 단체들이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사업 진행시의 참고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sup>12)</sup> 사업 분야나 지역을 공유하는 단체들이 이전에 수행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은 재생에너지분야 원조 활동의 실제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기획-조사-교육-설비지원-평가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5년 동안의 사업 진행 과정 기록과 지원 공고 → 선발 → 사업수행 관련 교육 진행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평가의 프로세스를 갖는 코이카 지원사업 운영 과정 기록, 라오스 정부, 국립대, 외국 NGO, 국내 NGO, 정부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과정 기록, 소규모 태양광발전기 설비 구축 과정 기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기록,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과정 및 결과 기록을 포함한다.

2012년의 사업은 ‘코이카의 민간단체 사업발굴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싸이나부리 지역의 에너지 빈곤도 조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설비 지원의 타당성 확인, 현지 주민의 요구 조사 및 사업 협력 가능 체계 확인, 사업 진행을 위한 현장 인프라 조사를 목적으로 국내 문헌 조사 및 라오스 현장 조사를 수행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사업을 수행할 국제팀을 조직하고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거쳤으며 사업공모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의 전 과정과 결과물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사업구상, 동남아 기후정의 사업 논의안, 국제팀 회의자료 120911, 국제팀 회의자료 120918, 라오스 기후 시민단체

---

12) 코이카의 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ODA도서관(<http://lib.koica.go.kr/>)과 ODA정보포털(<http://www.oda.go.kr/opo/masc/mainPage.do>)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사업의 보고서를 찾기 어려웠다. 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민간 사업보고서는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제출하는 경우에 등록하고 있다고 한다. 코이카의 민간협력 사업은 민관협력부의 시민사회협력팀이 주관하고 있으나 연간 접수되는 보고서가 600상자에 이를 정도로 많고 기록관리담당 부서나 도서관으로의 이관에 대한 적절한 시스템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ODA정보포털 역시 지역별, 사업별, 연도별 통계정보를 제공할 뿐 실제 사업 수행 내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황 보고서, 코이카 사업구상\_0702 등의 기록을 통해 사업의 방향과 기초를 정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Pha Xang 중학교 간담회 사진 기록



〈그림 3〉은 2012년 현장조사 사업 중 한 중학교에서 진행된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직원, 현장조사팀의 간담회 모습을 담은 기록이다. 간담회 기록,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기록은 ODA 사업에 있어서 현장의 수요를 직접 조사하고 공동체 주도의 사업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새로 원조사업을 기획하는 단체라면 반드시 현장조사 중에 실제 수혜 대상의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조의 규모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현장조사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2개의 산간학교에 재생가



능에너지시스템을 보급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싸이냐부리 직업학교 전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한 이론과 실습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많은 부분이 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루는데 수혜국가에 이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사업 시에는 지원 단체가 철수하고서도 지역 안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 산골학교 태양광설비 및 실습 기록(좌)과 포스터(우)



위 기록은 2014년 10월 진행된 중등학교 태양광 설비 지원 및 직업학교 학생 실습 현장 기록과 마을에 배포한 태양광시스템 관리 사용법을 담은 교육용 포스터이다. 교육용 포스터의 경우 라오어를 모르는 소수민족들을 고려해 만든 것이다.<sup>13)</sup>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3년에 걸친 사업은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의 다년도 사업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사업의 성과가 반영되어 선정되었다. 2013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지원과 교육 진행에 더해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드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했다. 라오스 산골마을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한 것은 기후조건이 비슷한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또 2016년에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라오스 교육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위한 태양광발전 시스템 중심의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지원과 에너지 자립마을 기술자와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교재개발과 교육훈련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관련 기록: 라오스와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 예정갈림). 이러한 기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수혜국의 자립을 고려할 때 수행해야 하는 절차들을 확인할 수 있다.

---

13) 라오스에는 소수민족이 많다. 정부 공식 집계는 예전에는 68개, 최근에는 47개로 변동될 만큼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을 정도다(이영란 2009, 38). 라오족, 몽족, 호몽족, 시노족 등 크게 나누어지고 언어에 따라 라오-타이족, 몽-크메르족, 시노-티베트족, 호몽-미엔족으로 나누어지는데 하위 민족이 160개 이상이다. 민족 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별로 쓰는 언어가 타이어 계열, 크메리어 계열, 티베트어 계열 등 다양하다. 학비가 면제이기 때문에 공용어인 라오어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산골마을에 학교가 별로 없고 산골마을로 부임하는 선생님도 부족하며 기숙사 시설이 부족해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의 문맹률이 높다.

〈그림 5〉 MOU 체결 기사가 실린 현지 영자 신문



〈그림 5〉는 MOU체결에 대한 기사가 실린 라오스 현지 영자신문 KPL 라오통신의 2016년 5월 10일 기사를 찍은 사진기록이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위한 태양광발전 시스템 중심의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지원과 에너지 자립마을 기술자와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교재개발과 교육훈련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통 양해각서는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라오스 교육부 간에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에는 학교와 마을회관 등 마을의 공적 공간을 포함한 에너지 빈곤 가구들에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돕

고,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처음 접하는 산간학교 학생, 교사, 주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교육, 마을 기술자와 전문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교육의 제도화와 교재개발 등 지원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다(관련기록: 라오스와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_에정칼럼(생산자: 이영란)). 양해각서가 담고 있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활동은 라오스 교육부, 국립대학교, 관련단체 등 현지 기관들과는 물론, 재정적으로는 코이카의 민관협력 프로그램과, 특히 교육훈련 면으로는 관련분야 코이카 전문가, 해외 봉사단원과의 협력 작업 등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모든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MOU를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요구를 확인하고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과정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 기록을 통해서 이번 사업에 대해 라오스 정부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조효과성 면에서 이번 사업은 꽤 높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후의 사업 진행의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실제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이며 사업진행시 수혜국 중심의 원조, 주민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의 형성,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물자 지원과 동시에 전문가 양성 등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3) 라오스의 재발전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은 라오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사업 수행 중 시골마을을 돌며 직접 마을의 가구 수, 도로 상황 등을 조사한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자료이다. 수치를 보여주는 기록 뿐 아니라 사업 중 마을과 마을 사람들, 집, 도로

등의 모습은 여행객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라오스 시골마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6〉 삐마이를 준비하는 주민들



〈그림 6〉의 사진 기록은 불교국가인 라오스의 새해인 삐마이(Pi Mai)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오스의 새해로 불교력과 음력으로 계산해 매해 4월 중순경이 된다(이영란 2009, 93). 일주일에서 10일 가량 축제를 즐긴다. 이 기록을 통해 왜 여성들만 참여하고 있는지 동남아시아 국가의 명절과 여성들의 역할 등과 같은 주제의 연구와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진 한 장만으로 라오스의 축제 모습을 다 알 수는 없다. 사업기간 5년 동안 거의 매해 곳곳의 새해축제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으니 모아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림 7〉 라오스 아이들의 놀이



라오스 아이들의 놀이 모습이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즐겨하는(요즘엔 보기 힘들지만) 고무줄놀이와 비슷하다. 라오스 시골마을 어디나 강이 인접해 있어 물놀이를 하거나 낚시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네 공터에서 고무줄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는 짓궂은 장난을 하는 개구쟁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우리나라처럼 라오스에도 언젠가는 더 이상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삼삼오오 모여 고무줄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기가 찾아올까? 그때 이 기록은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될까?

〈그림 8〉의 사진기록은 산골학교 한 여자 선생님 집의 부엌을 찍은 것이다. “4시가 넘어서 수업이 끝나면 퇴근한다. 집으로가 땀에 젖은 몸을 씻고

〈그림 8〉 라오스 시골의 가정집 부엌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시장으로 가 그동안 좌판을 지키고 계셨을 할머니나 어머니하고 교대한다. 틈틈이 내일 팔 반찬 재료들을 주변 야채 좌판이나 가게들에서 사둔다… (중략)… 그러면 밤 10시가 넘어서 새벽에 만들어야 하는 반찬거리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또 이런저런 집안일, 학교일 등을 하고 1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든다. 올해 들어 매주 화요일 금요일엔 복권을 파는 일까지 시작했다. 또 장바구니처럼

큼직한 가방엔 방문판매하는 화장품들까지 들어있다. 고단하기 그지없는 일상이다(기증자의 칼럼 「내가 만약 라오스에서 태어났다면 그녀처럼 살 수 있을까?—라오스 여성들의 고단한 일상과 연꽃 같은 꿈」에서 발췌). 옛된 여자선생님의 발그레한 얼굴에서 이런 삶의 고단함을 상상할 수 있을까? 사업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며 서로의 삶을 나눌 때만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라오스 사람들은 놀이를 좋아한다. 10년 동안 라오스와 인연을 맺은 기증자의 표현으로 라오스 사람들은 ‘노는 것’, ‘먹는 것’, ‘치장하는 것’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이들도 즐겨하고 어른들도 즐겨하는 이 놀이는 빼팡(Pétanque)이라고 하는 놀이다. 야구공만한 쇠구슬로 하는 것

〈그림 9〉 라오스 사람들의 놀이 문화



으로 우리나라 구슬치기와 비슷하지만 어엿한 스포츠다. 라오스 전국체전은 물론 동남아시아게임(South East Asian Games)의 정식 종목이기도 하다(이영란 2009, 122). 기증자의 말에 따르면 놀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식민지를 거치며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의 시골은 아직도 공터가 많고 대부분 공유지여서 가능한 놀이인지도 모르겠다.

〈그림 10〉은 올해 3월 20일에 치러진 라오스의 제8차 선거의 제7 선거구 싸이냐부리도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보가 게시된 모습이다.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기호, 생년월일, 출신지, 거주지, 직위와 책무, 학력과 경력, 추천기관이 게재되어 있다(관련 기록: 라오스총선 초록발광, 칼럼 원고 원본). 사회주의국가의 선거는 어떤지, 더군다나 시골마을의 선거일 풍경은 어떠한지 볼 수 있는 기록 중 하나다.



〈그림 10〉 싸이나부리도의 국회의원 후보 공보



우리나라의 라오스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한국 중심의 연구들이다. 라오스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연구들이나 원조 대상국으로써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21세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면서 사회주의국가인 라오스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남긴 기록으로써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활동’ 컬렉션 기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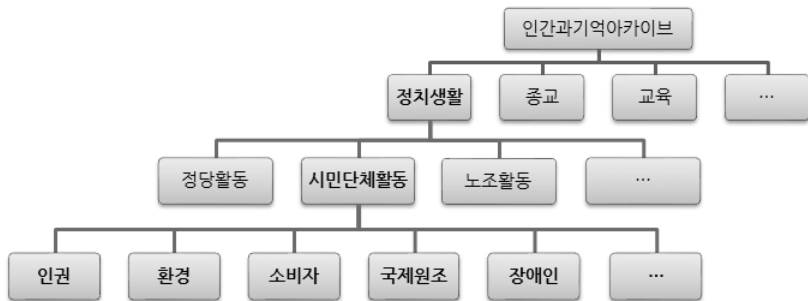
#### 4. 의미와 가치를 반영한 기록의 조직화 방안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의 조직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출처에 의한 분류와 기술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기록의 조직화 방

안을 도출한 후 앞서 도출한 세 가지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직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조직화의 목적은 기록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기록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기록이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기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도출한 바와 같이 이 컬렉션은 하나의 출처에서 나왔지만 기록이 담고 있는 내용의 성격이 달라서 같은 컬렉션에 있지만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1차적으로는 기록의 출처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라고 하는 NGO의 사업 중 하나로 보고 NGO 활동 기록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았다.

〈그림 11〉 일상아카이브에서 NGO활동의 위치



위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NGO활동의 범주를 그린 것이다. 각 단체의 활동 영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는 기증자 A가 소속되어 있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경우 위 분류에서 '환경' 분야에 해당하지만 라오스 사업의 경우 '국제원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처럼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주제 영역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단체는 수혜국의 필요에 따라 지원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복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위 분류체계를 도출하면 사업을 보여주는 기록을 중심으로 분류하게 된다. 사업의 흐름에 따라 연도별, 사업내용별로 기록을 통해 사업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기증자에게는 사업을 정리하는 의미인 동시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각각의 사업은 기획-사업진행-보고의 큰 프로세스를 가지며 연도별로 사업의 목표 수립과 이에 대한 수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한 후 수행 과정에 따라 하위 레벨의 분류를 진행했다. 사업진행 부분은 연도별로 사업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조사, 교육, 설비 지원 및 유지보수, 행정 등으로 나누었다.

〈표 3〉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사업 기록 분류

| 1레벨<br>(시리즈) | 2레벨<br>(파일) | 3레벨<br>(아이템)   |
|--------------|-------------|--|
| 2012년        | 기획          | 기획회의 회의자료, 칼럼, 홍보 자료   |
|              | 조사          | 사전 조사 관련 기록 - 라오스 에너지 현황, 국가 기초정보 내용 등<br>현지 조사 관련 기록 - 현장 방문 사진, 설문조사 기록, 간담회 등 파트너십 형성 과정 및 결과 |
|              | 보고          | 지역조사 결과보고서 양식 및 최종보고서 등  |
| 2013년        | 기획          | 기획서, 제안서, 기획회의 기록, 홍보(기사) 자료, 프로젝트 스케줄 등   |
|              | 조사          | 교육 및 설치 대상에 대한 조사 기록, 설비 관련 시장 조사 기록, 현장 조사 사진 등   |
|              | 교육          | 교육 일정, 교육 동영상, 교육자료 이미지 등  |
|              | 행정          | 현지 관련기관과의 협의 관련 기록(에너지광산국, 교육국, 썬라보 등), 라오스 지원 활동 평가, 사업수행 기술서, 사업예산 등                           |
|              | 설치/유지보수     | 설치 과정 기록, 유지보수 계획 및 진행 기록  |
| 2014년        | 기획          | 다년도 사업 기획 관련 기록, 교재개발 회의 사진, 라오스 사업 관련 칼럼, 신문보도 이미지, 사업진행 일정표 등                                  |
|              | 조사          |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라오스 출판 단체 방문조사 사진, 라오스 마을 조사, 오가너팜 방문 사진, 교재 개발 관련 조사 방문 사진 등                        |
|              | 교육          | 재생가능에너지 집합교육, 기술자교육 진행과정 및 교육 자료   |
|              | 행정          | 현지 기관 협의 기록(공문 등), 사무실 운영 기록, 인사 관련 기록   |
|              | 설치/유지보수     | 설치 과정 기록, 유지보수 계획 및 진행 기록  |

|       |          |   |
|-------|----------|---|
| 2015년 | 기획       | 예비기획위원회 회의 기록, 신문기사 등                                     |
|       | 조사       | 반남캐(에너지자립마을 대상지) 조사 사진, 에너지수요조사 툴킷                        |
|       | 교육       | 태양광 교육 사진, 태양광 발전기 제작 실습 사진, 교육일정 및 자료 등                  |
|       | 행정       | 라오센터(라오스 지부 사무실), 개소, 2015년 사업보고서, CPP사업 관련 자료, 회계보고 자료 등 |
|       | 설치/유지보수  | 설치 과정 기록, 유지보수 계획 및 진행 기록                                 |
| 2016년 | 기획       | 언론보도, 지구여행기공모사업 기획 등                                      |
|       | 교육       | 집합교육, 기술자교육 진행과정 및 교육 자료                                  |
|       | 에너지 자립마을 | 꿈반짝하오 조사 및 주민간담회, 설치 관련 과정 및 결과 기록                        |
|       | 행정       | INGO 등록, MOU체결 관련 기록, 코이카 ODA인턴 운영 관련 기록, 사업보고서 등         |
|       | 설치/유지보수  | 푸틴댕태양광설치, 견적서, 패널손상 사진 등                                  |

위 표는 사업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사업 기록분류표이다. INGO 등록부터 MOU체결까지의 행정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진행되어서 생산일자가 두 해에 걸쳐 있으나 굳이 나누지 않고 2016년 기록으로 분류했다. 또 2016년의 주요 사업인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조사와 회의, 에너지 설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기록물 사이의 연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하나의 파일로 분류했다. 기증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재생가능에너지교재를 하나의 폴더로 묶어서 정리하였으나(그림3과 표2 참조) 연도별 교육진행 과정 기록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진행 사업연도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1차 조직화를 하면서 해당 기록의 맥락정보를 풍부하게하기 위해 전거정보를 따로 정리하였다. 민간기록물은 전거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별 기록물 또는 기록물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맥락정보가 풍부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이 컬렉션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 단체, 지역 등에 대한 전거정보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국내 인물이나 단체의 경우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내용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활동가들과 코이카

사업 외에 공동 사업을 진행한 단체 또는 개인 정보는 기증자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 아쉬운 것은 국내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이다. NGO 활동 기록을 일부 수집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에서는 최근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단체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한국가이드스타,<sup>14)</sup> 서울시NPO지원센터<sup>15)</sup> 등의 NPO 단체정보 검색시스템에서만 단체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활동가의 활동기간이 길지 않고 불안정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활동을 종료하는 시민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기록을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전거레코드를 추적해야한다.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의 전거는 ISAAR(CPF)의 기술요소 중 개체의 종류, 이름 형식, 존재일자 등 필수요소를 기본 기술 항목으로 하고 기술영역에서 기능, 업무, 활동 항목도 추가로 필수요소로 정했다. 그 외에 식별영역에서 이름 병기 형식과 같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가능한 기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지원 기관인 코이카의 경우 국가기록원 생산기관현황정보에서 아주 간략한 기관 정보(기관코드:B260003)가 제공되고 있다. 국내 공공기관의 경우 이처럼 국가기록원의 전거정보를 활용해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라오스의 정부기관,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에 대한 정보는 아키비스트의 정보력만으로 기술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증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아키비스트가 개인, 단체, 지역명을 목록화한 후 기증자가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는 기증자 참여 기술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사용하고 있는 Omeka시스템은 전거레코드 등록 기능이 없고 엔티티 간의 연결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자 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유형을 만들어 등록하고 Item Relations Plug-In을 이용해 관련 기록과 연결하도록 했다.

---

14) [http://guidestar.or.kr/npo/search/npo\\_search.asp](http://guidestar.or.kr/npo/search/npo_search.asp)(검색: 2016.12.19).

15)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group](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group)(검색: 2016.12.19).

## 〈그림 12〉 전거레코드 제공 현황

(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표제 : (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병행해서 사용하는 이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예정연

년대

생산자 유형 : 단체

존속기간 : 2009.08.01 ~

위치정보 :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이진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남천동 209번지 4동

연락처 :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

파일 :

Item Relations  
This Item/terms: creatorItem: 조사계획서최종

위와 같이 전거레코드를 등록했다. 하단에 Item Relations 영역에서 ‘조사 계획서최종’ 부분을 누르면 해당 아이템으로 연결이 된다.<sup>16)</sup> 국내 기관으로는 생산단체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외에 환경교육센터, 주거복지협회, 환경재단 등 기록 생산에 관여한 기관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들 단체는 현장 방문, 교재 개발 등으로 활동가 또는 개인과 연결되어 협력, 활동한 주체들이다. 이들에 대한 전거기록도 등록 대상으로, 기록물 기술 시에 생산자명을 식별하여 그때그때 등록할 예정이다. 이런 전거기록은 기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6) <http://hmarchives.org/omeka/items/show/19665>(검색: 2016.12.19).

한편 이와 같이 사업 중심으로 기록을 분류하면 3장에서 도출한 컬렉션의 의미 중 기증자 A씨의 개인기록과 라오스를 재발견하게 하는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2차 조직화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컬렉션의 다른 측면인 활동가 개인기록과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을 이용자들에게 보여줄 때에는 아무리 이 사업을 이해하고 기증자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아키비스트라 할지라도 조직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1차 조직화를 바탕으로 활동가 개인의 고민과 활동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집 기록 외에도 추가적인 기록 수집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이 컬렉션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 기증자 심층인터뷰와 같은 과정에서 생산, 수집되는 기록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기증자의 기록물 기증이 끝나도 수집이 계속 되어야 한다. 기증자의 기술 참여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활동가로서의 고민과 활동을 이 기록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 탁월하고 특별해서라기보다는 라오스라는 한국사회와는 환경이 전혀 다른 라오스라는 곳에서 활동하면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어떻게 실행해 옮겼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조직화 방안으로 1차 조직화된 기록을 그의 시각으로 재검토 하고 추가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술을 보완하며 이 인터뷰 내용이 기록의 기술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라오스의 모습을 관찰한 기록은 역시 기증자의 관점과 추가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기록이든 기증자의 관찰기록이든 모든 기록물들이 라오스에 대한 어떤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또 라오스의 문화, 명절, 교육, 지리, 음식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주제적인 접근으로서는 생활사연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사 영역에서도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 등 일상의 기록을 민중의 생활을 읽어내는 텍스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생활사 아카이브의 분류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라오스의 재발견’ 스토리

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을 것으로 상당히 복잡한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 상태로는 기록의 양이 적고 언어와 문화, 생활양상이 우리와 다른 상황에서 선불리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록을 생산한 기증자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기증자의 관찰시점에서 기록을 조직화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컬렉션의 세 가지 의미와 가치 중 활동가로의 삶과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과 라오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해당 기록끼리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조직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증자의 칼럼과 관련 사진 기록을 연결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기증자의 일기와 사진 기록을 연결할 수도 있다. 즉 기증자 자신이 관찰한 활동 자체가 기록의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아키비스트는 기술적으로 해당 기록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의 개체 또는 아이템 연결 기능을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주제어 가이드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소 모호한 조직화 방안일 수 있지만 기증자의 참여기술과 기록 수집을 단지 얹고 계속 열어 두는 것이 이 기록컬렉션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기록컬렉션에 대한 문헌 연구, 기증자 심층 인터뷰, 내용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증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보여주는 기록으로의 가치’, ‘라오스 재발전의 가치’, ‘기증자 개인의 삶을 보여주는 기록으로의 가치’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해당 기록컬렉션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 싸이냐부리 지역에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와 기술자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기록과 이 사업의 총 책임자인 기증자가 라오스에서 지내면서 생산한 라오스에 대한 기록,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행사 기록 및 개인적인 여행 기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기록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원조단체들이 사업 진행을 위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특히 기후변화대응을 다루는 환경ODA에 관한 기록이 드문 상황에서 원조사업을 하는 단체들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5년 동안의 사업 내용을 통해 원조사업 진행 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조사해야 할 항목,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현지 파트너십의 형성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을 수행한 기증자의 국제개발협력과 라오스에 대한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있어 개인기록물로서도 큰 가치를 가진다. 라오스를 관찰한 기록을 통해 기증자의 사람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라오스의 사람, 자연, 국가 상황에 대한 관찰 기록은 라오스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나 여행객으로 잠시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라오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의미와 가치를 도출한 이후에는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해당 컬렉션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일상아카이브에서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은 출처와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시민단체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루고 있는 주제는 '환경-에너지' 영역이었다. 컬렉션에 속해 있는 개인기록은 라오스의 명절, 선거, 교육, 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으나 분석하기에는 기록물의 양이 많지 않으므로 향후 기록이 더 수집되거나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록물이 입수될 경우 해당 분류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컬렉션은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온라인전시프로그램인 Omeka에 등록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을 보여주는 기록을 연도별, 사업 프로세스별로 식별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아이탬을 제외한 컬렉션, 시리즈, 파일계층까지의 등록이 완료되어 있고 파일별로 정리된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기증자가 요구하는 타임라인별로 진행 과정과 기록을 연결하는 전시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록물 선별 중에 있으며 원문제공을 위해 기록물을 서비스포맷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시 구성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 라오스를 연구하는 연구자, 라오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활동’ 컬렉션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며 5년간의 코이카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다른 방식의 지원 사업을 준비해야하는 사업단체와 활동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김대환. 2010. OECD/DAC 가입과 KOICA의 환경 및 기후변화 ODA 추진전략. 『국제개발협력』, 2010(2), 10-31.
- 김 영, 설문원. 2015.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참여의 맥락-밀양765kW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01-151.
- 김영천, 한광웅.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 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3), 5-43.
- 김철희. 2011.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진희, 안병옥. 2014. 환경분야 ODA 사업 유·무상 연계 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 양영미. 2010. 사람이 중심이 되는 원조를 위하여 ; 라오스를 찾아서-한국의 ODA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모니터링, 『아시아저널』 2(0), 5·18기념재단, 219-239.
- 이영남. 2016. 기록학과 윤리적 관점. 『기록학연구』, 50, 5-60.
- 이영란. 2009. 『씨바이디 라오스』, 이매진.

- 이요한. 2009. 한국의 대(對) 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효율화 전략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연구』, 19(1), 185-213.
- 이요한. 2012.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18.
- 이은화. 2009. 아카이브즈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 배민수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현우, 한미정. 2005. 국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에 대한 일반 공중·기업·NGO의 인식 비교 및 기업의 NGO 대응 활동에 대한 연구. 『홍보학연구』, 9(2), 98-131.
- 장현식. 2001. OECD/DAC회원국의 개발원조사업과 NGO와의 협력, 『국제지역연구』, 5(1), 49-66.
- 조철민. 2015. 비정부단체(NGOs)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 지역 시민사회의 지형. 『공간과 사회』, 51, 179-211.
- 주현미, 임진희. 녹색당 선거활동 기록의 의미 분석 연구. 『기록학연구』, 49, 121-173.
- 최인혁, 이영학. 2015.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49-76.
- 한재각. 2010.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개발-NGO와 사회적 기업의 경험. 『환경사회학연구 ECO』, 14(2), 187-230.
- 한재광. 2014. 한국 시민사회의 개발재원 현황. 『국제개발협력』, 2014(1), 31-50.

